



지성
창조
봉사

한라초추

T H E H A L L A T I M E S

발행인:김성훈 주간:정무상 편집장:김소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전화: (064) 741-7552

2021년 05월 24일 제220호



“행복한지 따져보는 건 우울해지는 지름길이야.”

- 영화 ‘우리의 20세기’ 中 -

선선한 바람이 지나가고,
미지근한 바람이 오는 지금.

내리쬐는 햇볕과 함께 무거워진 머릿속을 비우고
행복을 따져보는 것이 아닌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길

대 학 부

<2면>

- 취업 고민은 이제 그만
- 학생들의 고민 우리가 도와줄게!

<3면>

- 개교 52주년 기념 교직원 표창패 수여
- 증명서, 이제 집에서 쉽게 발급 받아요!
-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기 획 부

<4면>

-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그것이 알고 싶다
-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5면>

- KT 인터넷 품질 논란

<6면>

-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주인들의 착각
- 뉴스레터를 아나요?

문 화 부

<7면>

- 세계인의 날을 아십니까?
- ‘탐나도’의 탐나는 이야기

<8면>

- 제주도 도민과 관광객은 여길 주목하라
-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취업 고민은 이제 그만
취·창업지원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학생, 취업 관련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얻고 싶은 학생, 취업 문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학생들은 주목해보자. 제주한라대학교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하여 취·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취·창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인력개발, 취업지원, 창업교육 등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와 연계한 개인역량 개발을 폭넓게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취·창업 강좌를 운영한다.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체제인 Hall In One 취업지원시스템은 5가지 Step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Step은 자신의 강점과약 및 진로의식, 전공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목표 설정, 진로목표 맞춤형 경력개발 핵심취업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과 맞춤형 취업준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JOB CAFE와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자아를 탐색한 후 3A career system과 현장실습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로를 설정한다. I-JOA system과 DID, 기업상담실, 홈페이지, 스마트취업정보 system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전용강의실, 모의 면접실, 화상모의면접 시스템, 행정실(센터)에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프로그램은 핵심취업역량 개발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성, 리더십,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 실천취업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취·창업강좌를 운영한다. 취·창업지원센터는 또한 우리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 앱을 통해 스마트캠퍼스에 접속한 뒤 스마트취업센터 관심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관심 업종, 직종, 취업프로그램을 체크 및 등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취업정보에 대한 수신이 가능하다. 취·창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를 참고하여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 Hall In One 취업지원시스템



▲ 구인·구직활동 지원 체계: I-JOA system

* 취·창업지원센터의 근무시간 9:00 ~ 17:00

<대학부장 강서경>

학생들의 고민, 우리가 도와줄게!
면접 준비부터 면접 정장까지 모두 물어봐~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은 취업을 포함한 심리적인 문제까지의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게 된다. 제주한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고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센터와 학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면접 정장 대여 프로그램	JOB '오름' 온&오프 취업코칭 프로그램	2021 대학연계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면접 정장 대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취업 시 면접 때 정장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여기간은 6박 7일 로 도서관이 있는 예관동 1층에 위치한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2월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한라춘추 인스타 게시물 혹은 취·창업 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업코칭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여 운영 기간은 면접 정장 대여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이는 맞춤형 서류클리닉과 면접 지도로 취업에 있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사전예약을 통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장소는 대면 상담 진행할 땐 취·창업센터 job cafe,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상담에 적합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AI 모의면접이나 전문가 화상면접 등 취업에 있어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교육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하며 참여방법은 제주한라대학교 취·창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좌측 꿈날개 청년지원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고 회원가입과 소속정보 등록 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21 슬기로운 한라생활 면접 정장 대여 프로그램 취·창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방문하기 ☑ 운영기간 2021. 04 ~ 2022.02, 월-금 14:00 ~ 17:00 (공휴일 제외) ※ 단, 운영상황 및 기타사유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유망직종·졸업예정자 중 구직준비 시료제형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취업관련프로그램 참여 시 면접정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대여종류 남성정장(상의,하의,와이셔츠,넥타이), 여성정장(상의,치마,블라우스) ☑ 대여기간 6박 7일 ☑ 신청장소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 예관동(도서관) 1층 ☑ 신청방법 개별 방문 접수 방문시간 예약 → 취·창업지원센터 참가패 방문 접수 및 대여 신청서 및 면접 대상자 확인서류 제출 → 면접 정장 반납 ※ 면접제형 참여 시 면접 일정 관련 응원서류(면접대상자와 안내문자, 메일 등) 제출 필수 ※ 면접을 신청한 면접관련 프로그램 1회 이상 참여 권장 ☑ 문의사항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 ☎ 064-741-7529 제주한라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21 슬기로운 한라생활 JOB '오름' 온&오프 취업코칭 프로그램 1 운영기간: 2021.03 ~ 2022.02 2 신청방법: 사전예약 통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 장소: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 또는 비대면 상담방법에 따라 상담에 적합한 환경 4 상담내용 맞춤형 서류클리닉 Cover Letter RESUME 비 또는 소규모 그룹별 (5인 이하) 서류클리닉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면접 지도 비 또는 소규모 그룹별 (5인 이하) 모의면접 (면접 유형별, 직무별, 컨설팅 등) 그 외, 진로고민, 취업 준비 계획 수립, 입사 지원 전략 수립, 기타 취업관련 궁금증 등 문의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 ☎ 064-741-7529 ✉ mihyema@chu.ac.kr 제주한라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꿈날개 청년지원센터 2021 대학연계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AI 모의면접/전문가 화상면접/온라인 취업상담 1:1 자기소개서클리닉/작품, 어학, IT콘텐츠/기업별 직무적성검사 운영기간 2021.03.15 ~ 2021.12.31. 참여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육 참여방법 우리대학 취·창업홈페이지(www.chu.ac.kr) 접속 홈페이지 좌측 꿈날개 청년지원센터 바로가기 배너 클릭 회원가입 및 소속정보 등록 후 온라인교육, 모의면접 등 학생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문의방법 취·창업지원센터 참가패 ☎ 064-741-7529 제주한라대학교 CHU HALLA UNIVERSITY 취·창업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이외에도 학생 상담 센터가 있는데, 꾸준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센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 혹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풀어내는 건 어떨까?

<수습기자 강재은>

개교 52주년 기념 교직원 표창패 수여

코로나의 확산 방지로 제주한라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2년이 지나 3년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이 접하는 수업 방식에 적응하며 힘들었던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및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이번 2021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제주한라대학교는 학교 교·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1969년 설립된 제주한라대학교는 올해 3월 21일에 개교 52주년을 맞았다.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교직원 및 강의 평가 최우수자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김성훈 총장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자긍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라며 우리 대학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수 상 자

- 공로패 : 강기선
- 감사패 : 사회복지과 홍연숙
- 금호학술상 : 지능형시스템공학과 김성진
- 표창패
 - 교원 : 호텔조리과 김우실, 임상병리과 박신영, 물리치료과 허영구, 응급구조과 고재문, 간호학과 김현주, 호텔외식경영학과 고석용, 뷰티아트과 김춘일, 사회복지과 고선영, 간호학과 부윤정
 - 직원 : 산학협력단 강태진, 사무처 고경한, 국제관광호텔학부 양우준, 일학습병행사업단 강재윤, 건설관리본부 고봉삼, 한라학사 강윤정
- 강의평가 최우수상 : 간호학과 윤석주

이번 표창패 목록에는 강의 평가 최우수상도 있다. 강의평가는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우리가 교수 및 강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 교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강의평가를 통해 전하고 그에 따른 좋은 평가 결과를 받는 것은 교수에게도 뿌듯한 일이 아닐까.

<편집국장 김소현>

증명서, 이제 집에서 쉽게 발급 받아요!

대학 입학 후 여러 활동을 접하다 보면 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온다. 증명서 발급이라고 하면 무조건 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집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증명서 발급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주목해보자.

홈페이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많은 배너가 있는데 증명서 발급 배너는 온라인 캠퍼스 배너 아래에 있다. 이 배너 말고도 주요 정보링크라고 적힌 초록색 배너에서 한라인-인터넷 증명을 통해서도 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 PC 버전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 제주한라대학교 홈페이지 배너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 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사 이버 강의실이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되는 아이디, 비밀번호와 동일하다. 로그인 후 학적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증명서 발급 창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증명서 발급 창은 제한 시간 15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 이 점을 참고하여 제때 시간 연장을 하면서 이용을 하길 바란다.

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증명서 발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편하게 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보자. <수습기자 강재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주한라대의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게요



최근 학교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제주한라대학교 학우분들에게’라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았을 때 가볍게 지나가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 포스터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이루어지며,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진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미화원분들이 휴식을 취하시는 한라 아트홀 이모넬름 쉼터에서 시간을 빌려 11:00~13:00까지 제37대 신념총학생회가 제주한라대학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건의 사항 및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일을 기획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레몬으로 수제 청 40개를 만들고 포스트잇에 정성이 담긴 문구를 자필로 적어 상자에 붙여서 전달했고, 이모넬름들에게 받은 건의 사항을 포스터 화하여 제작 후 각과 화장실, 흡연 부스에 붙여 홍보 전략으로 활용했다. 또한 신념총학생회는 그들에게 앞으로의 소통과 발전을 약속했다.



▲ 한라아트홀에서 선물 증정을 진행 중인 신념총학생회와 환경미화원분들



총학생회가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전하는 말

“안녕하십니까? 제주 한라대학교 제37대 신념총학생회입니다. 제주한라대학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신념총학생회가 더 신경을 기울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주한라대학교의 환경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환경미화원을 마주쳤을 때 한마디 수고의 인사라도 건네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떨어진 쓰레기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똑바로 버려주는 일상 속의 사소한 노력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게 어떨까?

<수습기자 김민석>

제주한라대학교

학우분들에게

1. 음료수 드시고 교내 화단에 버리지 말아 주세요.

2. 세면대에서 손 씻고 거울 쪽에 물을 뿌리지 말아 주세요.

3. 세면대 주변 화장지로 손을 닦으시고,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4. 분리 수거통에 분리 후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5. 강의실 책상에 낙서하지 말아주시고, 쓰레기는 꼭 버려주세요.

6. 정수기를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7. 벽보를 붙인 후에 날씨가 경과되면 제거 부탁드립니다.

8. 한라대학교 축제 기간에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파손하지 말아 주세요.

9.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청소도구가 분실이 됩니다. 자제하여 주세요.

10. 흡연장소에서 흡연하시고 공초는 재떨이에 버려주세요.

매일 허리 굽혀 청소하시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비가 오는 날엔 학생들이 넘어질까 물기를 닦으며 수고해 주시는
환경미화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는
선생님들의 허리를 한 번이라도 덜 숙이게 하며,
웃으며 드리는 인사는 선생님들의 활기를 북돋아 줍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제 37대 신념총학생회

▲ 제주한라대학교 환경미화원이 전하는 말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그것이 알고 싶다

A/S 안되는 거 아니야? 중고폰 보상은 어찌지?



갑자기 불거진 LG 스마트폰 철수 소식으로 놀라움도 잠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되는 걸까? 액정이라도 깨지게 된다면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LG 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한 생기는 많은 궁금증을 풀어보자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그 이유는?

2000년대 최고의 인기였던 LG전자의 휴대폰, 영광은 잠깐이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LG전자는 아이폰 3G가 처음 나왔을 당시, 스마트폰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신경 쓰지 않았고, 기존의 피쳐폰(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같은 과거 2G 휴대폰을 통틀어 이르는 말)에만 열중한 나머지 갤럭시와 아이폰에 선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스마트폰 사업은 24분기 동안 누적 적자가 5조 원 이상 되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살리기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였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전 디지털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중저가형 폰으로 인하여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지도를 깎아내린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LG전자는 사업 부진이 계속되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의 잘하고 있던 가전 디지털 사업을 더욱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 LG전자 스마트폰 누적적자 추이

LG전자 스마트폰이 고장 난다면 수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존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공식 일자는 2021년 7월 31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프리미엄 모델은 3년, 보급형 모델은 2년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유지할 예정이며, 'LG페이'도 3년간 유지할 방침이다. 액정이 깨지거나 메인보드 손상과 같은 기계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A/S가 필요한 경우는 최종 제조일로부터 4년간 가능하다. 또한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인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소비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LG전자의 전국 120여 개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치와 수리를 위한 부품 재고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사별로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모델	모델	모델
중고폰 보상 대상 모델	V40, G8, V50, V50S, 벨벳, 링	V50	V50
변경 가능 모델	출시 1년 내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노트, 갤럭시폴드, 갤럭시Z플립, 갤럭시퀀텀, 아이폰12 시리즈, 아이폰13 시리즈	LG벨벳, 링, 갤럭시노트20시리즈,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3, Z플립3, 아이폰12시리즈, 아이폰13시리즈	갤럭시노트20시리즈,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아이폰12, 아이폰13

중국산 저가폰은 싫고, 삼0전자나 애0의 고가폰은 애매할 때,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좋은 대안이 되어주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오래된 역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 철수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LG전자가 사라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0전자와 애0에 독과점이 계속된다면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되는 것은 아닐지 많은 아쉬움이 든다.

<수습기자 김정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해왔는가?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 유행이 일어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2018년에는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 조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소 폐쇄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어 발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극단적인 폐쇄 정책보다는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온건한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FATF에서 정한 규정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는 회원국인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규정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ATF의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실명인증이 완료된 계좌를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체로 실명과 주소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많은 중소거래소들이 이때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현재 비트코인 규제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과세법안을 통과하여 2022년부터 보유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50만원 이상을 보유하였을 때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20%의 과세가 붙는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과세는 하면서 자산 보호는 해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화폐 계좌의 실명제가 의무화가 되었으나, 이번에도 성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1년 현재 금융위원장 은00은 거래소 폐쇄를 주장하여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이 힘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단적인 방안을 내놓아 비판을 받는 것이 현 상황이다.



▲ 비트코인 과세

한국 정부는 왜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코로나 시국 아래 실시 중인 경기부양책인 화폐발행을 통한 양적완화 과정에서 시장에서 돌아야 할 화폐가 암호화폐로 빠져나가면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직 투기와 도박으로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나타나는 비트코인의 위험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위험성으로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매순간 큰 폭으로 등락을 한다는 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기에는 24시간 차트만 바라보게 되는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코인의 중독성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거액의 돈의 등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잊게 되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 24시간 등락하는 차트

현재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규제를 가하였으나,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의 단일한 규제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고 정부는 빠르게 투자자들과 규제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자 김승운>

KT 인터넷 품질 논란

유튜버 ㅇ섭이 쏘아올린 공

kt

5G

우리나라는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통신사 KT는 2018년 해외에서 5G와 와이파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유명 유튜버 ㅇ섭의 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유튜버 ㅇ섭의 KT 10기가 인터넷 사용 리뷰

4월 17일 구독자 171만명을 보유한 유명 IT전문 유튜버 ㅇ섭이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GB 요금을 냈는데 사실 KT빠(퀵)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 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섭은 KT를 쓰면서 만족하기도 했고, 유튜브 초기에 시작할 때 KT에서는 새로운 단말기를 아무 조건없이 계속 대여를 해주었고 어려웠을 때 도와준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항상 KT를 고집했지만 10GB 인터넷 비추 영상을 찍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처음으로는 10GB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ㅇ섭은 크리에이터로 다운로드와 업로드하는 양이 많고 큰 파일을 주로 다루는 사무실에서는 1GB 인터넷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10GB를 써왔다. 1GB보다 10배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큰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역폭이 가장 큰 장점이 라고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입장으로서 말했다. 예를 들어 1GB를 썼을 때 4대의 PC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하게된다면 1GB 안에서 속도를 나눠서 서야 하지만 10GB라면 그 10GB 안에서 나눠 쓰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유튜버 ㅇ섭의 직접 겪은 사례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kt 인터넷을 바로 설치 했다. 며칠 전 스튜디오 인터넷이 10GB 아닌 100MB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게 있겠지 하고 모뎀을 꺾다치고 공유기를 빼보고 다이렉트로 돌려도보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지만 들어오는 인터넷이 100MB로 제한이 걸려있었던 것이다. 일정 사용량 초과시 당일에 한해 최대 100MB로 속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마다 다르다. ㅇ섭 인터넷 기준에서 1TB가 넘으면 제한이 걸리는데 하루 사용량을 보면 200~300GB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걸릴 일이 없다. 심지어 이것을 발견했을 때가 처음이 아니다.

이사를 오기 전 스튜디오에서는 10GB를 사용했는데 다운로드는 5GB로 제한이 걸려있고 업로드만 모두 풀스피드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나서 문의를 하니 kt에서 “원격으로 초기화 했으니 속도가 다시 잘 나올거예요”라는 답변을 받고 나서는 바로 10GB 속도가 모두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는 실수였겠지 하고 지나쳤지만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하는 김에 속도측정을 해보니 kt 속도가 100MB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발견하기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 업로드 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게임을 다운받는데 3-4시간 뜨길래 최근 해외망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 100MG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았는데 또 “원격으로 서버나 모뎀을 초기화 했으니 kt 다시 속도가 잘 나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안되면 저희가 기사 분 방문 해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고 속도 측정을 해보니 kt 다시 10GB로 잘 나왔다.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장비 문제가 아닐 것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기 때문에 감액요청을 했다. kt에서는 “기사 분이 점검하신 후에 감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기사가 전화 왔다.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증상일까요?”라는 말에 “10GB 속도를 쓰고있는데 100MG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114에 전화하니 kt 초기화를 해준다고 한 후에 다시 속도가 잘 나와요.”라고 대답을 했고 기사는 “애네들 또 그러네.. 그럼 해결이 되었으니 일단 방문은 하지 않을게요”하며 끊고 kt에서 연락이 없어 한 번 더 전화를 했다. kt에서는 “10GB를 쓰고 있으니 100MB가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이해가 안가지만 1GB와 10GB 중간 요금으로 책정을 해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요금감액의 조건은 기사분이 직접 고장을 확인해야하는데 기사가 오지도 않았고 모뎀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10GB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요금감액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ㅇ섭은 다음번에 문제 발생 우려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kt에서는 매번 “속도 느려짐에 대해 먼저 체크할 수는 없고, 해결책은 소비자 측에서 속도 측정을 해서 속도가 느려지면 매번 전화를 달라”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ㅇ섭은 속도문제의 해결책은 kt에게 있고 원격으로 1-2분 내로 고쳐지는데 kt가 느려진 점을 감지하고 소비자가 먼저 인지하기 전에 고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대응

잇섭 대비효과, 통신3사 전수조사

가정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법

여론이 악화하자 구현모 대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내용을 조사해보니 시설을 옮길 때 속도 설정 부분이 잘못됐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10GB와 5GB 인터넷 고객을 조사한 결과 24명 고객 설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요금 감면과 함께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KT는 이날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10GiGA 인터넷 품질관련 사과의 말씀

KT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에 발생한 10GiGA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하여 매우 죄송합니다.

이러한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GiGA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10GiGA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님들께 개별 안내를 드려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10GiGA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KT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KT 임직원 일동 올림

▲ 10GB 인터넷 품질관련 사과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인터넷 속도가 느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장비의 고장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 속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해보고 자신이 낸 요금만큼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자.

<기획부장 양희정>

가정에서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가지 절차만 따르면 된다. 먼저 kt와 LG U+ 홈페이지서 속도가 측정 가능하다. 한국중앙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포털에서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측정을 검색해서 인터넷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동일상품의 평균속도까지도 알 수 있다.



▲ 한국중앙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 속도 측정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주인들의 착각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최근 제주도 내에서 산책 중이던 견주가 오프리쉬 견으로 인해 반려견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견 천만 시대인 현재, 오프리쉬 견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알아보자.

오프리쉬란 무엇일까? 이는 off(~로부터 떨어진)와 leash(줄)의 합성어로 오프리쉬 견은 반려견이 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산책을 즐기는 학우들이라면 오프리쉬 상태의 개들을 한 번쯤은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프리쉬를 택하는 대부분의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물지 않고 곁에서만 잘 걷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와 관련된 많은 건수의 물림 사고와 교통사고 또는 실종은 오프리쉬 상태에서 주로 일어난다.

바야흐로 3년 전, 개 물림 사고 급증에 따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지키는 견주는 흔치 않다. 더불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오프리쉬 견들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발생한 반려견 물림 사고의 피해자는 10,000명 이상이다. 이는 사람의 피해만 수치화된 것으로 물림 사고로 발생하는 반려견들의 피해는 셀 수도 없다. 견주가 오프리쉬가 허용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리드줄을 잘 착용한다면 사고의 건수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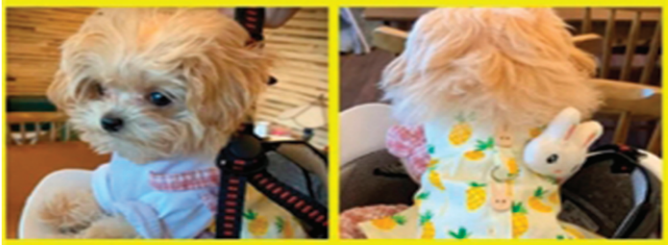
오프리쉬가 위험한 이유는?	오프리쉬에 따른 법률
반려견이 오프리쉬의 상태에 있을 때는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가 흥분한 반려견을 제어할 수 없어 자칫 다가가는 반려견이 견주까지 무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려견이 갑자기 놀랄 경우 멀리 도망가 반려견을 잃어버릴 수 있다.	- 오프리쉬 1회 적발 시 20만원 - 오프리쉬 2회 적발 시 30만원 - 오프리쉬 3회 이상 적발 시 50만원 - 리드줄의 길이는 2m이상을 넘지 아니한다 (내년 2월부터) * 위 내용은 소형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오프리쉬 견의 습격을 받은 말티푸 '넛또'를 찾습니다	

오프리쉬 사고와 관련해 제주한라대학교 학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20분쯤, 제주도 과좌읍 평대리에서 말티푸 넛또를 산책시키던 도중 목줄을 하지 않은 오프리쉬 대형견 2마리가 순식간에 뛰어와서 넛또를 입에 물고 사라졌다. 사고 발생 당시 놀란 견주는 말티푸 넛또와 다른 반려견의 리드줄을 잡아당겼지만, 같이 산책시키던 다른 반려견만 당겨졌고 넛또는 대형견에게 잡혀갔다. 그로부터 2, 3분이 지난 뒤 말티푸 넛또를 물고 간 대형견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지만 넛또는 없었다. 오프리쉬 대형견에게 물린 다른 반려견의 옷에 선명하게 이빨 자국이 남아있다고 한다.

실종된 말티푸 넛또는 생후 4개월로 아직 접종도 끝내지 않았으며 증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이다. 현재 견주는 곳곳에 전단지지를 붙이며 실종된 말티푸 넛또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넛또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길을 다니다가 사진 속 강아지를 본다면 010-6767-7355로 연락해주길 바란다.

물림사고 실종견을 찾습니다



넛또 / 암컷(증성화x) / 4개월 / 1kg미만 / 황색 / 제주시 평대리길 39-6 여가회 기숙

▲ 넛또 사진(출처:인스타O랩 @pompoo_ddo_u)

사고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온다. 또 다른 넛또가 나오지 않게 여러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리드줄을 착용해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문화를 만들어보자.

<홍보부장 조수빈>

뉴스레터를 아나요?

시간은 없지만, 세상은 궁금하다.



많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당신! 세상에 변화에 따라가고 싶은데 찾기 귀찮고 뉴스가 너무 어려운 당신에게 추천하는 뉴스레터란, 뉴스(news)와 레터(letter)가 합쳐진 말로 새 소식 편지. 즉, 소식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스레터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입력해 구독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보내주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NEWNEEK(뉴닉)

뉴닉은 20대 여성 2명이 창업한 뉴스레터로 고슴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우며 독자들과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이메일로 배달되는 뉴닉은 그날 점심 자리에서 대화의 주제가 될만한 뉴스 3가지를 제공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던 방식이 아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고 부드럽게 전달한다. 만약에 ‘알트코인’이 이슈가 됐을 경우 “알트코인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핫한 거야?”, “우와, 1000배? 나도 들어갈까?”하는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풀어간다. 어려운 뉴스를 밀레니얼세대를 위해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려는 뉴닉은 어려운 부분도 섬세하게 설명하며 구독자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또한, 기사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중간에 넣어 놔다. 이것은 뉴닉 커(뉴닉을 구독한 사람)들이 뉴닉을 제대로 이해하여 조금 더 뉴스와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시사뉴스와 친해지고 싶은 학우들에게 뉴닉을 추천한다.



▲ 뉴닉의 마스코트 '고슴이'

Money letter(머니레터)

머니레터는 직장인과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금융정보부터 포레 직장인들의 금융정보를 전하는 금융경제 미디어 UPPITY(어피티)에서 만든 뉴스레터이다. 매주 월, 금요일 아침 8시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이메일로 배달하며 “출근길에 읽을 수 있는 무료 뉴스레터”를 내세운다. 내용은 재테크나 경제 개념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필수 금융 경제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친근하게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들은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하는 상식 같은 전세보험, 월세, 전세, 전세자금대출 등 무거운 이야기를 질의응답식으로 친절하게 풀어준다.



기사에 소개한 뉴스레터 말고도 빵덕후 기자의 빵술랭 가이드, 음악인을 위한 스페이스 오디오팅 많은 종류에 뉴스레터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정보들을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뉴스레터로 받아보자.

<수습기자 정의림>

세계인의 날을 아십니까? 5월 20일은 다문화 이해하는 날



가정의 달로 알려진 5월, 대부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5월에는 또 다른 기념일 이 숨겨져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기념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대해 알아보자.



▲ 세계인의 날 포스터



▲ 포항 세계인의 날 행사 포스터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권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섞이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란 무엇일까?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부쩍 많이 찾아오면서 공부와 사업을 위해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주변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고 국제결혼이 곧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의 국적에 따라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어쩌면 낯설지도 모르는 이 다문화라는 모습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다. 김수로왕과 인도 공주인 허황옥 왕후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 역사 속 가장 잘 알려진 다문화 이야기이다. 이렇듯 다문화는 결코 새롭고 특별한 모습이 아니다.

세계인의 날이 지정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여러 행사가 개최됐다. 현재 총인구 716,000여 명 중 외국인의 비율이 약 12%로 국내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안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작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안산시에서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출입국 업무 상담, 산재 및 고용보험 서비스 상담, 인권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퀴즈왕을 뽑는 퀴즈대회도 진행되었는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퀴즈로 출제되었고 현장에서 바로 정답과 풀이를 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해나, 칼 팍 모자 만들기, 전통의 상 입어보기 등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힘든 문화 체험 부스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세계인의 날 행사로 포항에서는 포항시민 및 포항시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포항에서 배우는 해외 자매우호 도시 고메 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요리 원데이 클래스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요리 총 4회로 진행된다. 또한, 경상대학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다정’에서는 다 함께 정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비대면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다양한 콘텐츠들과 상품도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억하자 이런 작은 인식이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수습기자 현수영>



‘탐나도’의 탐나는 이야기 해녀의 신, 구슬할망

제주도의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취아~’ 하는 숨비소리와 함께 물질을 하는 해녀들을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의 문화로 깊게 자리 잡은 해녀들의 조상은 누구일까? 해녀들의 꿈이 담긴 설화, ‘구슬할망’에 대해 알아보자



▲ 구슬할망

✦ 육지에서 온 ‘구슬할망’

‘구슬할망’은 ‘물질을 배워 구슬(진주)을 따는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해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슬할망이 본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에서 쫓겨나 한양에서 오갈 곳이 없던 구슬할망은 김씨사공에 의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제주 특산물을 한양으로 진상하는 일을 하던 김씨 사공이 한양에서 구슬프게 우는 구슬할망을 우연히 보고 이를 딱하게 여겨 구슬할망을 제주도로 데려왔다. 당시, 제주도는 섬으로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 사공은 구슬할망을 도포 자락에 숨겨 배에 태웠고, 비밀리에 구슬할망을 제주도로 데려왔다.

✦ 물질을 하게 된 ‘구슬할망’

제주에 들어온 이후, 김씨 사공에게 번번이 신세만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구슬할망은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물질을 배웠다. 그녀의 물질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구슬할망은 주로 전복을 많이 잡았는데, 잡는 전복마다 그 안에 굵은 진주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자신이 잡은 진주를 임금에게 진상 올리자 임금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구슬할망에게 오색 구슬을 내려주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녀를 ‘구슬할망’이라 불렀다. 김씨 사공과 부부의 연을 맺은 구슬할망은 9명의 딸을 낳았고, 시간이 흐른 후 죽음을 앞두고 딸들을 불러 “너희들을 지켜줄 테이니 제사와 명절이 되면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라”고 말하며 스스로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 이 설화의 특징은 구슬할망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자손들이 정성껏 모신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제주 여성들, 특히 물질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해녀들의 꿈과 바람이 깃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숨을 삼킨 채 바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살아가기 위해 아니, 살아야만하기에 깊은 어둠을 헤엄쳐온 제주의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화부장 성현아>

제주도 도민과 관광객은 여길 주목하라. 새로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에 제주의 가치를 담다



‘탐나는전’이란?

지난해 출시된 ‘탐나는전’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된 제주형 지역화폐이다. 명칭은 제주 옛 이름 “탐라”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탐내는 지역 화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그대로 담겼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카드형, 모바일형 120억 원(60%)과 종이형 상품권 80억 원(40%)으로 발행된다.

‘탐나는전’ 구매 방법

‘탐나는전’ 구매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종이와 카드,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각각 구매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종이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세 가지 종류로,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을 직접 방문해 구매하여야 한다. 카드형이나 모바일은 탐나는 전의 전용 앱을 이용하여 카드 신청 및 앱 등록 후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연 5백만 원 이내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한도 초과 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탐나는전’의 혜택



- ☑ 카드형, 모바일형 충전 시 10% 추가 적립되며 최대 월 70만 원 연 5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 ☑ 종이형 상품권 구매 시 10% 즉시 할인되며 사용 시 현금영수증까지 발행 가능하다.
- ☑ 카드형과 모바일 형은 연말 정산 시에 30%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전통 시장은 40%까지 소득공제를 혜택 받을 수 있다.

‘탐나는전’ 가맹점

소비자의 경우 탐나는 전 앱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서 전통시장, 헬스, 약국, 꽃집, 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 등 다양한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비롯해 도내 5개 대규모점 점포, 준대규모점 점포,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종합병원 <중소기업 기본법>의 정한 매출액 기준 이상의 업체 등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된다. 한라대학교 주변 가맹점 에이바우트, 투썸 등 주변 모든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변 음식점도 모두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탐나는전’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 걸 알 수 있다. 또한 올리브 영과 옷 가게에서 의류 잡화 직물 등을 쇼핑할 수 있고, 헬스장과 학원에서 취미생활 또한 ‘탐나는전’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

간단한 신청방법과 많은 혜택을 갖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수습기자 김채리>

당신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물!



누구나 알다시피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한 물을 섭취하는 대신 주스, 커피와 같은 음료를 섭취하며 수분을 공급한다. 과연 이러한 음료로도 체내에 충분한 수분 보충이 되는 것일까? 한번 수분 섭취에 대해 알아보자.

97% 80% 75% 70% 60% 50%이하



▲ 연령별 체내 수분량

✦ 물의 역할(효능)?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10%만 잃어도 위험한 상태가 되고 20% 이상을 잃게 될 경우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체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물의 활동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체내에서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녹이거나 노폐물을 씻어내고, 단백질(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항체)을 품고 있어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킨다. 그리고 골수 내의 혈액 생산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각종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시스템의 효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과도한 물의 양을 섭취하면 물 중독?	커피나 음료로 수분보충?	나에게 맞는 하루 물 권장 섭취량
세계보건기구(WHO)는 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종이컵으로 8컵인 1.5L~2L로 권고했다. 권장량을 넘어선 과도한 양의 물을 섭취할 경우 두통과 구토, 근육경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물 중독’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할 경우는 뇌가 손상되고 혼수상태나 사망까지 이어진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에서는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탈수방지를 위해 물을 많이 마시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한 남성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잘못 이해해 매일 5L의 물을 마셔 몸이 필요로 하는 나트륨까지 씻어내 뇌가 부어 사흘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술이나 커피, 음료는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커피나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소변을 통해 수분을 자주 배출하다 보면 몸속 수분량이 줄어든다. 음료(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이 당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순수한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 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음료를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생각하며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미자차, 메밀차, 보이차, 보리차를 권한다.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은 1.5L~2L이다. 그러나 섭취량은 개개인의 체질, 운동량, 날씨 등에 따라 다르다. 자신에게 맞지 않게 과도하게 섭취한다면 물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부족할 경우 수분부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나에게 맞는 하루 물 권장 섭취량 계산법을 사용하여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 하루 물 권장 섭취량=(키+몸무게)÷100 ✦ 예로, 170이고 몸무게가 70kg이라면 (170+70)÷100=2.4L ▲ 하루 물 권장 섭취량 계산법

뭐든지 한 번에 잘하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해야 한다는 말처럼, 물도 한 번에 과다하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수분섭취를 하기에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1~2컵을 마시고, 취침 전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우리 모두 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자. <수습기자 김혜진>